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 영** · 설 문 원***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1) 연구방법과 조사
 - 2)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투쟁
4. 생애사 사례 재구성
 - 1) 김예분 : 때가 이기 내 뎨가 시프더라
 - 2) 이영현 : 765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5. 사례의 특징과 비교
6. 결론

* 김예분 씨와의 생애사 면접 동영상 제공해준 조현나 감독과 삶의 깊은 내면까지 드러내 보이며 면접조사에 응해주신 구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익한 논평으로 부족한 논문을 발전시켜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NRF-2013S1A3A2054223)에 의해 수행되었다.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주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교신저자).

■투고일 : 2015년 3월 15일 ■최초심사일 : 2015년 3월 22일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3일.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밀양송전탑반대투쟁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해,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 속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체험이 환경운동 참여의 생애사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의 사례자들은 사회운동 참여를 통해 가족이 경험한 국가폭력과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냄으로써 가족의 삶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강요된 침묵을 깨고 상처를 드러내 치유하는 힘은 사회운동 속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이다. 이 연구에서의 이러한 발견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국가폭력의 체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회성원들의 기억 속에 은폐되고 억압되어 있을,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연대의 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구술생애사 기록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구술생애사 기록은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문자문화에 편입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공적 기록만으로 역사적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기록을 모으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공적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대립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남겨진 기록만으로는 균형 잡힌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생산한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 참여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는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행위에 대해 풍부하고 균형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밀양765kV송전탑반대운동, 국가폭력, 트라우마, 구술생애사, 치유, 연대

1. 서론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이후 밀양투쟁)은 2005년에 시작되어 2015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환경운동 중 하나다. 2014년 9월에 송전탑 건설이 완료되었고 2015년 여름부터 송전이 시작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핵발전의 비중을 높이려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자체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밀양 투쟁은 밀양지역에 송전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지역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환경운동, 그리고 탈핵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¹⁾

밀양투쟁은 자신과 두 동생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송전탑 건설을 위해 내놓으라는 국가의 요구에 한 노인(이치우, 74세)이 목숨으로 저항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민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밀양투쟁은 ‘할매’들의 헌신적이고도 격렬한 저항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송전탑 건설을 위한 벌목을 막기 위해 산을 기어오르고, 산 위에 움막을 짓고 기거하며, 포크레인 아래에 들어가고, 전기톱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를 몸으로 끌어안고, 심지어 알몸으로 경찰의 폭력에 맞서기까지 한 ‘할매’들의 투쟁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밀양의 할머니들은 왜 그토록 격렬히 끈질기게 저항했을까? 평생 사회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이 갑자기 환경운동의 주역이 된 이유와 맥락은 무엇일까? 사회운동 참여는커녕, 평생 살림만 살아온 그녀들이 고향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준다는 공적 영역의 막중한 임무를 그간 공적 영역을 대표해온 사람들에게 위

1) 엄은희, 「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 밀양 송전탑 갈등을 사례로」, 『공간과사회』 22(2), 2012, 51-91쪽; 이상현·이정필·이보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공간과사회』 24(2), 2014, 252-286쪽; 김영 「젠더 분석의 관점에서 본 밀양송전탑반대투쟁」,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 발표문, 2014.

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지난한 싸움이 그녀들 자신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연구는 밀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중고령 여성 주민들의 구술생애사 자료를 분석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즉 참여자들은 어떤 삶의 경험을 배경으로 밀양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밀양투쟁에 참여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참여자의 삶에서 밀양운동에의 참여가 갖는 생애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사회운동 중에서도 풀뿌리 운동의 경우 참여 동기가 이념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이 연구는 풀뿌리운동의 성립과 유지에 관한 미시동학을 규명하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술생애사는 로컬리티 기록화(documenting localities)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로컬리티는 주체의 경험으로 통해 형성되는 동적 개념이므로 로컬리티 기록화의 주요 대상은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이 되어야 한다.²⁾ 특히 만들어진 기록에 포착되지 않은 집단의 기업과 경험을 위한 방안으로서 구술생애사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록화 측면에서 구술생애사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적 기록에서 배제될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의 기억을 기록화의 중요 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적응하는 동시에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는 상호작용의 망이고 역사는 바로 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역사 기록은 무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배제된 것이기도 하다. 공식역사는 언제나 그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개인이나 집단의 관점에서 수집되고 기록되

2) 설문원,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호, 2014, 287-326쪽.

기 때문이다. 공식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이 때문에 주변화되고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의 역사는 공식역사기록을 통해 알기 어렵다. 구술 생애사는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역사의 연결고리를 발견해 그것이 사회의 변동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둘째, 문자기록에서 배제된 집단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화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사례인 김예분 씨(가명)는 생애사 구술을 마친 후 “글이라도, 국민이라도 좀 알았으면[국민학교라도 다녔으면], 시상, 일기장을 만들어가 내 지낸 일을 다 적고 참 책을 매아가지고 묶어서, 온-, 온 세계에 돌렸시마, 좀 봤시마[봤으면] 어느 사람이 안 온 사람 없을끼다.” “글 모르는 내 죄고.”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구술생애사 자료는 문자문화에 진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역사적 행위의 기록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구술생애사는 기록 생산의 맥락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술생애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록’이지만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행위들의 개인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정보원의 일부이자 운동 주체들에 대한 전거자료(authority data)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회운동 참여의 생애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운동 참여자 내에 존재하는 참여 맥락의 다양성을 포착함으로써 그 참여의 지속성과 변화여부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사회운동 참여의 생애사적 맥락을 통해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온다면 주체의 사회운동 참여에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를 추론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와 양대 세계체제의 대립에 의한 분단으로 현재까지도 여전한 이념대립으

로 다층적인 배체의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구술 생애사 자료는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사와 변동을 더 깊이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가 채택하는 구술 생애사 분석 방법은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개인들의 삶의 경험을 깊이 들음으로써, 사회운동의 형성과 전개된 미시적 맥락을 발견할 뿐 아니라 공식역사기록에 대해서도 풍부한 이해의 맥락을 제공해줄 것이다.

2. 선행연구

밀양투쟁이 한국을 대표하는 환경인만큼 이 운동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은 연구는 사회적 갈등의 전개와 관리(해결방안 모색)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다.³⁾ 이 연구들은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킨 요인임을 지적하고 갈등이 시작된 이후 조정하는 것보다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토대로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더 합리적일뿐 아니라 더 경제적이라고 조언한다. 또 시민단체의 갈등중재기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기록화 측면의 연구로는 밀양 환경갈등 기록의 수집·축적 구조로서 동적 내러티브 모형을 제시한 연구,⁴⁾ 밀양 주민운동 아카이브를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과 절차를 제시한 연구⁵⁾가 있다. 이 연구

3) 조성배,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2(2), 2012, 128-168쪽; 임만석,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론적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심형구, 「국책사업 갈등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4) 설문원, 앞의 글, 2014.

들은 앞의 연구들과 같이 밀양투쟁을 갈등사건으로 보고 갈등의 전개 과정과 쟁점을 기록화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생산된 기록의 구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술기록 및 구술생애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

밀양투쟁에 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들⁶⁾에서는 매체의 성격과 중앙지/지방지 여부에 따라 밀양투쟁에 관한 보도 빈도 및 보도 프레임이 크게 달라짐을 지적한다. 이치우 씨의 분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앙지에서는 밀양투쟁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또 언론매체의 보도는 대부분 갈등대립의 프레임에 입각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추구하는 환경정의의 관점이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갈등대립 프레임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론매체가 스스로 밀양에서 전개되는 갈등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하기보다 사실 전달 위주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밀양투쟁의 방향성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⁷⁾ 즉 2005년부터 시작된 밀양투쟁이 2012년부터 송전탑이 밀양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로서 개별화되고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핵발전이라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위험임을 주장하며, 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운동방향의 확대, 전

-
- 5) 설문원,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2014, 7-36쪽.
 - 6) 이화연·윤순진, 「밀양고압 송전선로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환경정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98, 2013, 40-76쪽; 이성균,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에 대한 뉴스 보도 연구」, 『2013년 한국소통학회 가을철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3, 65-96쪽.
 - 7) 엄은희, 앞의 글 2013; 허주영·김영, 『누가 이치우 할아버지를 죽였나?: 밀양의 송전탑 건설반대 주민운동에 관한 보고』, 2013, 122-159쪽;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BK21사업단 산업팀, 『사회갈등을 묻다』,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이상헌 외, 앞의 글, 2014.

환은, 소위 외부세력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밀양투쟁의 이러한 방향성 전환이 투쟁주체와 투쟁방향성에서 남성적 운동에서 여성적 운동으로의 전환이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⁸⁾ 즉 밀양투쟁은 지역의 남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국가의 압도적 물리력과 경제적 유혹에 굴복해 운동 일선에서 퇴각했다. 2012년 이후 여성이 운동의 중심적 주체로 부상했고 모성적 사유와 실천에 입각한 지역 여성들의 헌신은 전국의 연대자들을 밀양지역으로 결집시켰다. 모성성은 투쟁의 공간을 보살핌의 공간, 살림의 공간, 공존과 공감의 공간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이상과 같이 밀양투쟁의 성격과 전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 운동이 참여자 개개인의 생애체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주목한 연구는 없다. 만일 이 운동에의 참가 동기가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고향산천을 지키는 것뿐이라면 송전탑건설이 완료되고 곧 송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운동을 지속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주된 참여자들이 고령의 나이에 처음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점을 생각할 때 그들이 왜 그 나이에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에 밀양투쟁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차원의 주민운동의 경우 운동참가의 맥락이 이념적 동의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애체험의 맥락에서 사회운동에의 참가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일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 또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다. 맑스, 베버, 뒤르켐 등 고전 사회학자들은 집합행동을 거시적인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동지향적인

8) 김영, 앞의 글, 2014

사회적 행동으로 이해했고, 사회적 변동 및 구조적 지위에 의한 불만이 나 박탈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해왔다.

그러나 “계급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계급 지향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⁹⁾이라는 올슨의 말처럼 개인은 자신이 직접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불만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집합행동 참여자들은 참여에 따르는 비용과 이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될 때 집합행동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개인이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수준보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미시적 수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원동원이론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불만은 어느 사회에나 편재하므로 불만 또는 이익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운동 발생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고위험 사회운동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집합행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원(특히 돈과 전문가인력) 및 조직 동원 능력, 그리고 정치적 기회가 중요하다.¹⁰⁾

반면 사회운동에 대한 구성주의 접근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개인의 역사나 계급, 인종, 젠더의 위치와 무관한 의사-보편적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음을 비판한다.¹¹⁾ 자원동원이론이 구조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불만/만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불만이나 참여자들 간의 연대, 그리고 참여자들의 의미형성의 과정의 규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¹²⁾ 나아

9)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bard Univ. Press, 1965; 최광·이성규 역, 『집합행동의 논리』 한국문화사, 2013, 169쪽.

10) McCarthy, J. and M.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2, 1977, pp.1212-1241; McAdam,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Univ. of Chicago Press, 1982.

11) Ferree, M. M., “The Political Context of Rationality” in *Morris and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Conn : Yale Univ. Press, 1992, pp.29-52.

가 구성주의적 접근은 자원동원이론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음을 비판한다.¹³⁾ 인간은 고립된 효용 추구자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의미체계에 배태된 행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행위자는 민족, 인종, 계급, 젠더 또는 종교에 기초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초해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위치지워진 개인들이 어떻게 의미의 구성을 통해 사회운동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운동 연구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구성주의적 접근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이 연구는 밀양투쟁의 중심적인 참여자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통해 밀양투쟁 참여자들의 의미구성과 지속, 변화에 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구술자가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는 자료인 구술생애사는 사회적 의미체계에 배태된 행위자로서의 사회운동참여자의 의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설명을 도울 것이다.

3.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연구방법과 조사

인간은 자기 존재에 선행하는 사회 속에 태어나 사회적 규범을 습득함으로써 생물학적 실존을 넘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기존의 규범과 의미체계를 단지 수용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12) Beuchler, S., "Beyond Resource Mobilization: Emerging Trends in Social movement Theory," *Sociological Quarterly*, Vol.34, 1993, pp.217-35.

13) Mueller, Carol M, "Building social Movement Theory," in Morris and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pp.3-28.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및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의미체계를 변화시키며 자신의 의미체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기초해 행위한다.¹⁴⁾ 즉 개인의 삶은 사회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개인주체와 역사가 상호작용한 결과물¹⁵⁾이며 개인 주체의 대응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또한 변화한다.

개인 주체가 직접 자신의 삶의 경험을 전달하는 구술생애사는 구술자가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 주체가 자신이 놓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즉 개인의 주체성을 잘 드러낸다. 또 구술생애사는 구술자가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을 매개로 회상한 과거 경험에 관한 이야기로 구술자의 현재의 관점이 과거의 경험 중 특정 경험에 대한 기억을 선택하고 기억의 시간성과 주체적 연결, 나아가 그 기억의 전달방식과 전달여부도 선택한다.¹⁶⁾

생애사 재구성(reconstruction of life history)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왜 구술자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순서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가” “구술자가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¹⁷⁾ 즉 구술자의 생애사적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구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기준으로 연구자는 구술된 생애사를 실제 구술자가 살았을 생애사(life as lived)와 대조하여 구술자가 어떤 과거 체험(life as experienced)을 통해 현재의 생애사적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

14)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나은영 역, 『정신 자아 사회』, 한길사, 2010; Blumer, H.,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박영신 역. 『사회과학의 상징적 교섭론』, 까치, 1982.

15) Mills, C. Wright., *Sociological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강희경 · 이해찬 역, 『사회학적 상상력』, 돌베개, 2004.

16) Rosenthal, G., “Biographical Research” in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Sage, 2004, p.50.

17) Rosenthal, Ibid, p.59

며, 구술자의 과거의 체험의 사실성과 구술자의 해석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전체 생애사적 맥락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삶 간의 상호관계(interrelationship)와 사회적 실재(societal reality)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연구 방법이다.¹⁸⁾

필자들은 2012년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밀양투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현지 조사는 2014년 7월부터 시작했고 201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필자 중 한 명은 문서 및 방물 자료 수집을, 다른 한 명은 면접조사를 주로 진행했다.¹⁹⁾ 필자들은 사회운동의 참여의미를 생애사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연구를 기획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2014년 6월 11일의 행정대집행 시까지 유지되었던 4개 농성장을 지켰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면접을 진행했다. 면접한 주민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고 시험 송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한전과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합의한 1명의 경우도 공사소음 때문에 지병이 악화되어 요양비를 받았으나 요양 후 송전탑반대집회에는 참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필자들은 면접 전에 집회와 학술회의 등에서 일부의 주민 및 활동가들과 수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필자들의 지인인 연대자들을 통해 장기간 간접 접촉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은 대체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주민면접은 사랑방²⁰⁾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구술자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18) Rosenthal, Ibid, p.62.

19) 구술생애사 면접: 주민 12명, 연대자 및 대책위 활동가 8명, 심층면접: 주민 2명, 연대자 및 대책위 활동가 4명

20)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으로 송전탑 건설 예정지 근처에 있던 농성장이 강제 철거된 후 마을별로 8개의 사랑방이 만들어졌다(평밭, 위양, 여수, 고정, 고담, 동화전, 용회, 골안).

12명의 주민들의 구술 생애사를 분석하면서 필자는 구술자들의 사회 운동 참여 맥락에서 이념대립으로 인한 국가폭력 체험이 하나의 중요한 유형을 구성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면접한 주민들의 밀양투쟁 참여의 생애사적 맥락에서는 다른 유형들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논문에서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국가폭력으로 파괴된 삶의 회복”이라는 유형에 해당하는 두 사례만을 분석한다. 각 사례의 분석은 생애사 재구성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²¹⁾ 구술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구술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김예분 씨의 구술생애사 자료는 밀양투쟁에 적극 참여하며 김예분 씨와 오랜 친분을 쌓아온 조현나 감독이 촬영한 영상자료의 녹취록과 필자들의 면접조사 녹취록을 함께 사용하였다. 필자들은 김예분 씨의 생애 경험에 대해 알고 있었고 고령의 구술자에게 참혹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하기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다.²²⁾ 그런데 조 감독이 자신의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필자들의 면접은 초기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제 위에 보충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영현 씨와는 밀양투쟁 참여경험 자체에 대한 면접을 2회 진행한 후 생애사 면접을 진행했다.

21) 구술생애사는 녹취록으로 작성된 후 분석된다. 분석 절차는, 구술자의 생애 경험을 시기별, 사건별로 정리한 후 구술의 구조와 방식(주장, 묘사, 이야기)을 분석(생애 이야기 재구성, reconstruction of the life story)해 생애사 재구성(reconstruction of life history)한다. 그리고 생애이야기와 생애사의 유형을 추출해 사례들을 비교하고 유형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술생애사 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인용한 Rosenthal 2004와 Rosenthal, “Reconstruction of life stories: principles of selection in generating stories for biographical interview” in *The narrative study of lives I*, Sage, 1993, pp.59-91,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2005, 120-148쪽을 참조하십시오.

22) 조현나 감독과의 첫 생애사 면접에서 김예분 씨는 내내 울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구술한다.

2)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투쟁²³⁾

밀양투쟁은 '신고리-북경남 765kV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의해 밀양시 5개면(단장면,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청도면)에 69기의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고압송전탑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자연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삶의 뿌리를 파괴하지만 한전은 2005년 11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단 한 번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송전선로 경과지의 측량에 의문을 느낀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2005년 8월에 개최된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전부였다. 주민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원(電源)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국가가 전원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1월부터 반대운동이 시작되었고 주민들의 요구는 선로변경에서 출발해 송전선 지중화 요구 및 송전탑건설계획 자체의 철회로 발전해갔으나 한전은 논의를 보상금 문제로만 국한하고자 했다. 한전은 밀양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직면해 전력사업에 대해 개별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규정을 변경해 개별보상을 시작했다. 또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적은 마을 또는 주민들을 보상금으로 유인해 합의를 확대했고 이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2011년 가을부터 송전탑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자 주민들은 온몸으로 벌목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1월에 이치우 씨가 분신자살했고 2013년 12월에는 유한숙 씨가 음독자살했다. 이 외에도 경찰병력을 동원한 장기간의 물리적 충돌로 많은 고령의 주민들이 다쳤고 다양한 유

23) 밀양투쟁의 진행경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임석만, 앞의 글, 2013, 심형구, 앞의 글, 2014, 김영, 앞의 글 2014를 참조하시오.

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밀양투쟁의 진행과정은 2012년 1월에 발생한 이치우 씨의 분신 전과 후, 그리고 2014년 6월 11일의 행정대집행 이후 현재까지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 모색을 중심으로 지역적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제2기는 전국에서 모여든 연대자들과 결합해 자연환경보존과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운동의 전선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제3기는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투쟁(헌법 소원)과 협동조합(미니팜) 운영을 통한 운동성과의 확산 및 심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000여 가구로 추산되는 직접 피해 가구 중 2014년 초 현재 260여 가구가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반대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4. 생애사 사례 재구성

1) 김예분 : 때가 이기 내 댜가 시프더라

(1) 성장기의 생애 체험 : 내 클 적에 오만 거 다 했어예

김예분 씨는 1928년에 밀양의 산골마을에서 빈농의 막내딸(1남3녀)로 태어났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또 딸을 낳자 옆에 있던 다듬잇돌로 눌러 죽이려 했으나 증조할머니가 말려서 죽이지 못했다. 오빠의 장녀가 김예분 씨와 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조카들과 함께 자랐다. 형편이 어려워 “시집 가기 전에 말-날 녀의[남의] 일이나 하고, 삼이나 삼고, 소나 먹이고, 모나 숨구고” “내 클 적에 오만 거 다”하며 컸다. “이 노무 일본 시대는 일본 놈 때문에 주야장천 옷하고 어데 입도 못하고 주야로 맨발로, 맨발로 얼마나 댜기”다가 17살이던 1944년 2월에 “일본

놈들이 그 가스나들 마 잡아갈 때”,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옆 마
을로 시집왔다.

(2) 짧은 결혼 생활 : 신랑이라 카는 거는 마-, 보도연맹 거- 나가 가지고 흔적도 없제

특별한 질문 없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면접자의 요청에
따라 전개되는 초기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구술자의 생애사적 관점을 압
축해서 보여준다. 아래에 인용한 김예분 씨의 초기 이야기의 시작도 마
찬가지다. 김예분 씨는 자신의 삶을 지역과의 강한 일체감(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안다는 것)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평생에 걸친 고통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한 시간 이상에 걸쳐 남편
의 죽음과 그 후에 이어진 삶의 불행에 대해 울면서 구술한다. 65년이나
된 과거의 일들을 정말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상세하고 생생히 묘사하
는 김예분 씨의 구술은 65년 전의 생애사적 사건이 김예분 씨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사하는 동시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삶의 고통이 과거
의 고통이 아니라, 평생을 지배했으며, 또 현재진행형임을 의미한다.

김예분 씨의 생애사를 재구성해보면, 결혼 직후 김예분 씨의 남편은
일제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 산속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1년간 숨어 지
냈다. 남편은 해방과 함께 집에 돌아왔으나 해방되기 일주일 전에 시아
버지가 사망했다. 그리고 1950년 3월 보도연맹²⁴원 소집이라는 명목으

24) 이승만 대통령이 대국민상상통제를 위해 1949년 6월에 조직했던 반공단체로 정
식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다. 전향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한다고 했지만 경찰서
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서 보도연맹에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다
고 한다. 면책의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
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원들의 인민군 가담이나, 부역행위를 우려하
여 전국에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다. 보도연맹원의 규모는 1950년 초의
집계로는 30만 명이었고,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된 사람들은 최소 60만 명 이
상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위키백과, 2015. 2. 24. 검색).

로 김예분 씨의 남편이 경찰에게 끌려갔다. 김예분 씨가 스물 세 살, 남편이 스물 여섯 살, 큰 아들이 다섯 살, 둘째 아들이 돌도 되기 전의 일이었다.

한평생 여기 사이(사니까), 이 산에 천지 내 안 간 데가 없고 내 발길이 안 뚫던 데가 없십니다. 이 산, 이 산 돌아, 저 산 너머고 어디고. 그리 뭐 일찍 그거 해 봐야까네 안 댕긴 데가 없고 (중략, 이 지역 산천을 잘 안다는 이야기) 내 스물 세 살에 그래 뭐 신랑이라 카는 거는 마 보도연맹 거 나가 가지고 흔적도 없제. 순사들이 잡아 가 가지고 어데다 직이뿌고 뭐 없제. (중략, 당시의 남편, 본인, 아들들의 나이에 관한 이야기) 그 질[길]로 살아 나가매 (울먹이기 시작) 핏디[핏덩이] 그거를 데꼬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홀쩍임) 그래, 그래 가지고 우리 백모님이 참날로 잘 도와줘서, 우리 오빠가, 친정 오빠가 도와줘서, 그래 한평생 내가 살았다. 산다꼬, 그 자식 둘이 그거 놔두고 내가 내뻘리뿌고 가면 우야졌나 싶어, 얼---매나 나부대고 얼-매나 고생을 하고. (홀쩍임) (김예분, I, 1/37-2/32²⁵)

3월에 끌려간 김예분 씨의 남편은 한국전쟁 발발 시까지 식민지 시대에 방직공장(“나카노 공장”)이었던 건물에 수용되어 있었고 그녀는 몇 차례 면회를 갔다. 경찰들은 먹을 것을 건네 주고 남편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는 김예분씨를 “씨-발년, 그거를 서방이라고 보러 오나”라고 욕을 하며 “총 주게[주격] 안 있습니까. 그거로 때리가지고” 김예분 씨는 물론이고 업고 있던 아기까지도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아들을 만나러 간 김예분 씨의 시어머니도 구타당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경찰들

25) 녹취 텍스트의 인용은 (구술자, 면접차수, 녹취록 쪽/행)으로 표기한다. 밑줄은 필자에 의한 강조. []는 사투리를 표준말로 옮긴 것이다. 김예분 씨의 경우 첫 번째 면접은 조현나 감독이 두 번째 면접은 필자 중 한 명이 진행했다.

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서너 번 남편을 만나고 나서,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6월말에 “난닝구 두 개 사고 팬티 두 개 사고, 그래 가가(가서), 보리, 보리쌀 그거 볶아가 미숫가루 요만침 해가 가이게나, 그 마당에 가이, 불로, 동홯불로 놔 놓고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 질(길)로 마 없 어졌어. 먹을 거 꺼 내뿌고 사람 다 실고 가뿌고 없데에.”(김예분, I, 6/30-32). “구두 사고 가다마이(양복) 사서 걸어놓고” “살았는가-, 살았는가- 싫어가, 내-도록 올해 올란가-, 내년엔 올란가-, 만-날 십년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졌다.

국가에 의한 남편 살해는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9월이 되어 찬바람이 불자 삼베 옷을 입은 채 사라진 아들이 추위에 떨 것을 걱정하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찾겠다며 삼량진 역까지 걸어갔다는 후 “고마-마-마 입으로 마- 피를 마- 자-꾸 내보예. 입으로 피로(피를) 내놓고 마, 알로도(아래로도) 피를 내놓고”하다 이틀 후에 숨을 거두었다. 해방되기 일주일 전에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까지 잃은 상태에서 “태산같이 믿고 살”던 시어머니조차 국가가 빼앗아갔다. “천지가 히-떡 디비지는(뒤집어 지는 것 같)아 시모와 함께 죽으려고도 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꺼번에 잃고 김예분 씨는 어린 두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 논일, 밭일을 하고, 150근이나 되는 나뭇단을 이고 하루에 수십 리씩을 걸어 가 파는 등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두 아들과 함께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 차마 죽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친정에 달려가 어머니와 오빠에게 울며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며 버티었다. 시어머니 사망 후부터 율화병에 걸려 “소 오줌도 마시보고 휘발유도” 마셔봤지만 낫지를 않자 시백모가 담배를 권해 스물 일곱부터 “과부 심심초”라는 담배에 위로받으며 살았다.

김예분 씨의 가장 큰 한은 아들들을 교육시키지 못한 것이다. 김예분

씨는 자신들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해 아들들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장에 취직시켰으나 기술을 배우는 것에도 교육자본이 필요했다.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영어독해 능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겨우 국민 학교만 졸업한 김예분 씨의 둘째 아들은 영어를 읽을 수 없었고 스무 살 무렵 공장(섬유공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큰 아들은 열 살을 겨우 넘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공장일(주사기 제조공장)이 너무 가혹해, 결국 집으로 데려와 농사일을 돕게 했다. 아들들에게 학력자본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에 김예분 씨는 심지어 자신이 키우기보다 고아원에 보냈어야 했다고도 생각한다. 공장을 그만둔 후 평생 영세자영업을 전전하며 가난에 시달리다 얼마 전에 사망한 둘째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교육투자가 불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 하게 된 생각이다.²⁶⁾

두 시간 이상에 걸쳐 60여 년에 걸친 고통에 관해 구술한 후 김예분 씨는 텃마루에 나가 앉아 담뱃불을 붙여 물고 긴 한숨을 내쉬며, 글을 몰라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내가 다문[다만] 국민이라도 아는 것 같으면[국민학교라도 다닌 것 같으면] 일기장을 짝- 써봤으면 방이 한 방 돼가지고 그 좁 요 새 빗시마[보였으면], 세계가 다 알도록, 잡지책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사람 안 본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줄 낀데, 내가 글로, 내 지낸 일을 글로 다- 적어봤으면 이 방으로 해도 한 방 넘을낀데, 세상에 글이라도 국민이라도 좀 알았으면, 시상[세상에] 일기장을 만들어가 내 지낸 일을 다 적고 참 책을 매아가지고[묶어서] 온, 온 세계에 돌렸시마, 좀 봤시마[봤으면] 어느 사람이 안 온 사람

26) 김예분 씨는 아들의 죽음이 너무 슬퍼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고 아들의 옷을 가져다 안고 잤다.

없을까다 싶어. 글 모르는 내 죄고. 내 자식도 못 가르쳐 그거 내가 한 되고. (긴 침묵, 담배 피움) 담배가 내 심정을 아는 기라. 이 속이 이래 피아오르만 담배 안 피우마 안 되고. (김예분, I, 27/10-18)

(3)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 행여나 또 무슨 말썽이 있을랑가 싶어 가지고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 김예분 씨가 국가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장남의 베트남전 지원소식을 듣자마자 김예분 씨는 “내 서방 거 가가 죽었는데”라며 남편의 죽음을 연상하고,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기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황급히 파월 장병들을 실은 배가 출발하는 부산으로 달려왔지만 “손도 한 번 못잡고” 배에 탄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김예분 씨는 아들마저 잃을 것이라는 공포와 슬픔에 부두에서 뒹굴며 오열했다.

내일 모레 간다 캐 가지고 돈을 그때 돈 칠(7)만원을, 어데다 빼낼라고, 돈도 참 밤중에 녀의 집에 가서, 우리 아무거시가 월남 간다카이, 내가 죽어도 월남 안 가그로, 내 서방 거 가가 죽었는데, 그게 그래 만일에 뭐 카면 몬 산다. (울면서 구슬) 내 뺏을 해도 내 갚을테이 돈 좀 썬 주이소. (중략, 돈을 들고 경기도까지 아들을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아들이 타고 있는 배를 보며 통곡하는 장면, 흐느끼며 구슬) 그 경찰 그 뺏이고, 헌병대. 헌병대 그기 막. 날로 안으니까, 야 이놈들아 안아내지 마라, 안아내지 마라, 내 자숙 우예 키았다고 저 수만리 월남땅에 강 복판을, 바다 복판을 보낼라 카노. 만감에[만약에] 저기 어떻게 카면 너거 책임 질래? 와 보내노--, 와 보내노--, 이래 고생하고 저래 고

생하고. 거서 마, 얼---매나 막 울고 마마 땅도 안 비이고인 보이
고. 뱃고동 소리 탁-- 나면, 콧- 나이께네, 뱃고동 소리 뿔이 뺑--
뺑- 거리 놔이 마, 두굴두굴 구불고(뿔고) (계속 훌쩍임) (김예
분, I, 3/18-4/5)

45년 전의 일인데도 김예분 씨는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뱃고동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 생생히 떠
올리며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재현하며 구술했고 계속 울었다. 남
편이 없어졌음을 알게 된 순간을 이야기할 때 김예분 씨는 계속 한숨
을 쉬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이 점은 김예분 씨의 삶의 불행이 남편이
국가에 의해 살해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생애사적 관점에 비추어볼
때 다소 의외일 수도 있지만 김예분 씨의 남편은 그녀가 일하러 간 사
이에 순사들에게 끌려갔고 공장으로 쓰던 건물에서 끌려나갈 때도 김
예분 씨는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설명가능하
다. 그렇기 때문에 김예분 씨에게 아들과의 작별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과의 작별이기도 했을 것이
다.

위에 인용한 구술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김예분 씨가 사지로
떠나게 된 아들을 뇌물공여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겨우 마련한 “논 두어 마지기를 팔아서” 값을
생각까지 하고 한밤중에 동네를 돌아다니며 돈을 끈다. 이런 행동은 김
예분씨가 국가기관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고 판
단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김예분 씨는 “(빨갱이 심부름을 한-필자) 원
두목자는 멀검-하이(멀쩡하게) 살아있고 아-무 죄도 없는” 남편이 끌려
간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남이 베트
남에서 임무수행 도중 크게 다쳐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도 10개월
이나 군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김예분 씨의 시백모가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제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조언에 따라 김예분 씨는 1970년에 5만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해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줄 관계자를 “알아, 알아가” 돈을 건내고, 아들을 조기 제대시켰다. 이 일은 김예분 씨뿐 아니라 1960년대를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불공정하고 부패한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국가가 김예분 씨에게 가한 폭력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죽음, 가난, 그리고 학력자본 결핍으로 인한 아들들의 고생만이 아니었다. 아래에 인용한, 남편이 전사했으면 연금이 나올텐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취미로” 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서 울었다는 김예분 씨의 구술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죽음의 낙인과도 같았던 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김예분 씨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김예분 씨의 큰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월남전에 지원했던 사실도 김예분 씨 가족이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쌀로 이고 가면 막- 신랑은 어데 갔는교? 군에 가 죽었는교?
예. 군에 가 죽었으면 마 이래 고생 안 해도 될킨데 와 이래 카는
교. 아-, 마, 그래도 마-, 내 취미로 이래 안 하는교, 그래 죽었다
소리를, 군에 갔다 죽었다 소리도 묻하고, (울면서) 군에 가노이
 죽었으면 내가 원통치나 안 하지. 자숙 공부나 마이 시켰지. 그
 래 맨날 울고 내 혼자 변소 가갖고 마 그 소리 들으면 눈물 나고.
 (김예분, 1, 7/7-11)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의 억압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편의 죽음을 숨기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김예분 씨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²⁷⁾ 필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고 아래에 인용한 대화의 바로 앞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김예분 씨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러나 다음 질문인 선거참여에 대해 김예분 씨는 “그런 거 빠지뿌모 행여나 또 무슨 말썽이 있을랑가 싶어 가지고 꼭- 다 땡겼어요”라고 답한다. 이 대답은 김예분 씨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되고 있을 거라는 불안을 언제나 안고 살았음을 시사한다.²⁸⁾

연구자 : 근데 그렇게 남편 데리고 간 사람들, 남편 죽인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 같은 거 안 했어요?

김예분 : 어떤 놈이 직있든둥[죽였던지], 한 뭉가이[한꺼번에] 그렇게 죽어뻘으이, 한 뭉가이 그래 죽어뻘으이 어떤 놈이 직있든지 뭐 알아야 뭐 욕을 하든둥, 밍든둥 하지. 그래 나까노 공장에 항-그[가득] 가뉘난 거를 다 갖다 직이뻘으이, 몇 차로 싣고 나와가 직이뻘으이.

(중략, 같은 내용의 질문과 대답 반복)

김예분 :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선거는.

연구자 : 선거는 왜 그렇게 열심히 가셨어요?

김예분 : 그래 뭐, 우리나라가 될라꼬 그래 하는데 안 찍어주게 되는데. 넌 하는 거, 그런 거 빠지뿌모 행여나 또 무슨 말썽이 있을랑가 싶어 가지고 꼭- 다 땡겼어요. 투표하러.

27) 필자는 이 질문 외에도 남편 일로 마을 주민들에 의한 가해나 따돌림은 없었는지도 물었다. 김예분 씨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남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만 거듭 대답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정말 좌익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장남의 월남전 지원은 설명하기 어렵다.

28) 조현나 감독은 2013년 12월부터 김예분 씨를 촬영하고 있는데 조 감독에게 김예분 씨는 “말 다 못한다, 말 다 못한다. 내 살은 거는 아무리 말해도 말 다 못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 필자와의 면접에서도 김예분 씨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연구자 : 무슨 말썽이 있을까봐요?

김예분 : 행여나 뒤에, 그 표 넣는 데 와 안 갔노 카는 그런 말썽이 있을까봐, 그래 갔지요. 투표라꼬는 다 해줬어요. (김예분, II, 17/29-18/10)

필자는 김예분 씨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예분 씨가 딸처럼 여기는 조 감독과 함께 방문했다. 그런데도 김예분 씨는 필자에게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의 삶을 질곡에 빠뜨린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다. 아마 쏟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김예분 씨는 아무리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또 무슨 말썽”을 만들지 모르는,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김예분 씨의 반응은 국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김예분 씨의 삶을 얼마나 깊이 지배해왔는지를 시사한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은 인간관계로부터의 고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친구에 대한 김예분 씨의 구술은 그 고립과 고독의 일면을 보여준다. 남편이 김예분 씨의 남편과 함께 끌려가 살해당한 같은 마을의 친구와 김예분 씨는 서로 처지가 같아서 특별히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결국 그 친구는 힘든 삶을 견딜 수가 없어 아이들을 두고 재혼했다. 친구가 재혼해 마을을 떠나자 김예분 씨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친구의 새 남편에게 친척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 집을 찾아가 몇 차례 만난 적도 있다. “심중에 있는 말, 지도 내한테 다하고, 나도 지한테 다하”며 친자매처럼 지냈던 동네 동생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김예분 씨는 종종 남겨진 동생 집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온다. “술담배를 잘 했”던 동생 담뱃볼도 붙여 놔준다. 너무 외롭고 허망한 날에는 폐가가 된 그 집에 들어가 한참을 누워있다 오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김예분 씨가 자신의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

을 시사한다. 김예분 씨는 “오만 고통 다 당코당하고 하이께네, 웃음 구녕[구멍] 그것도, 한숨 속에 눈물 속에 웃음 구녕도 막아뺏는거라, 마. 전혀 웃음이라 카는 거 날 때가 없다.”라고 말한다.

(4) 송전탑반대투쟁참가 : 스물이 가는 길

큰 아들을 제대시켜 집으로 데려온 후 농사일을 함께 하려했으나 허리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 아들은 농사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예분 씨는 큰 아들과 함께 둘째 아들이 있는 대구로 가서 10년 동안 살았다.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큰 아들의 세 아이를 키워주고, 큰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보고 밀양으로 다시 돌아왔다. 열심히 일하며 살았고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육십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는 이제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 직후인 IMF 때 큰 아들은 희망퇴직을 해야 했고 그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아들은 평생 가난 때문에 고생만 하다 2011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인근에 송전탑이 들어와 평생을 고생하며 “논밭 떼기 한 떼기 사난 거 물에 거품배끼 안되”게 되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김예분 씨가 연대자인 수녀들과 만나 자신이 왜 송전탑에 반대하는지를 울면서 말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 구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김예분 씨가 남편의 죽음을 거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삶의 고통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즉 이 구술을 통해 우리는 김예분 씨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삶과 역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으며, 송전탑이 힘든 시대를 버티고 살아온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또다시 질곡으로 빠뜨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면서 구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가 살았는데 이놈의 일본 시대는 일본놈 때문에 주야장천 옷하고 어데 입도 못하고 주

야로 맨발로. 맨발로 얼마나 땀기 가지고예, 일본 시대 XX 와, XXX 지름 짜주재, 공출로 가마이 짜주재, 발바닥에 밤 가시가 그냥 밟아도 굳은살이 돼갖고 안 배기예. 그러고로 고생해가, 을사년 보리 승년[흥년]에 보리 다 썩까뿌고[썩혀버리고] 다. 배로 배로 꿏고 물 끼 없어 가지고 그래 배 꿏고. 그러고로 살아가. 또 요 놈의 을사년 보리승년 지냈제, 육이오 사변 지냈제, 빨개이 시대 지냈제, 일본 시대 지냈지, 쪼매-, 여, 인제 늙어가 망구, 고향에 인자 맘 편코 공기 좋은 데 살라카이, 요 지랄로 하이 어떻게 살겠십니까, 싶거든. (김예분, I, 5/22-28)

2013년 연말의 생애사 인터뷰에서 김예분 씨는 밀양투쟁 참가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힌다. 첫째는 “이 산에 천지 내 안 간 데가 없고 내 밭길이 안 뚫던 데가 없”는 자신의 “안태고향(태어난 곳-필자)”을 송전탑이 망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송전탑이 시아버지의 묘소 바로 근처를 지난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직에[아침에] 밥 네 시에 밥 묵고, 밥 싸가 줌 지고” 공사현장이 있는 산 위까지 올라가 공사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몸을 다쳐 입원하기도 했다. 연로한 김예분 씨가 걱정되어 주민들이 그만 오시라고 해도 “내 맥아지[목아지]에 숨 붙어 가”있는 동안은 가야된다고 생각하며 남들 2시간 걸리는 곳을 네 시간씩 들여 기어 기어 늘 올라갔다. 안가면 “갔다 오는 사람 보마마[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사람 불라카이[불러니] 미안하고” 그래서 “여럿이 있는데 가서 불 앞에 내[내도록] 앉았다 오면 마음이 편태[편하다].”

아래에 인용한 두 번째 이유는 선거에 반드시 참여했다는 것과 같은 이유, 즉 다수의 결정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남편의 사후 김예분 씨 가족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하에 살아야했고 그 때문에 아들들을 공부시키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했다. 그래서 자신은 남편처럼 “서이[셋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스물이 가는 질[길]”을 가기 위해, 즉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송전탑 반대투쟁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김예분 씨에게 남편의 죽음은 1950년에 있었던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6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신과 아들들의 삶을 지배하는 살아 있는 고통, 현재의 고통이다. 그래서 송전탑 반대투쟁 참가도 곧바로 남편의 죽음과 연결된다.

나는 그지요. 우리 신랑이라 카는 사람은, 왜, 스물이 가는 질 [길] 따라가지, 왜왜) 다른 사람, 열 가는 질[길] 따라갔노. 나는, 죽어도 나는, 스물이 가는 질[길]로 가지 서이[셋이] 가는 질[길] 안 간다 카그든. 저렇게 난 저 땡길라 췌어요. 넌 하는 대로, 넌 따라 갈라꼬. 우리 서방이라 카는 기 보이소. 와 군에 가 죽어뵈이믄, 넌 다 마이 가는 데로 가 죽어뵈이믄 내 신세 이리 되겠싯 니꺼. 돈도 마이 타고, 호강시리[호강스럽게] 살고, 자숙[자식] 공부도 좇 시키고 이리 했을킨데, 왜 서이 가는 질[길]로 갔노 카는 기라. (김예분, I, 21/31-37)

그런데 김예분 씨에게 송전탑 반대투쟁 참여는 김예분 씨에게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에 짓눌려 지금까지도 감추고 살아야했던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아래에 인용한 구술은 공사 저지를 위해 산 위까지 기어서 오르고 내리며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렸던 이야기를 듣던 과정에서 연구자가 던진 한 마디 질문에 대해 김예분 씨가 쏟아낸 국에 대한 분노의 말들이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멋대로 침해하면서도 자신들의 폭력적 행동은 합법적인 것이라 하고 국민들의 저항행동은 무조건 불법이라 한다고 김예분 씨는 지적한다. “정치한다 카는 기 우리 정치는 아니고 전부 한전 놈 정치”, 즉 그런 국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고 경찰은 그들의 주구(개시키들)다. 남편과 아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차마 쏟아

내지 못했던 분노를 재산권 침해라는 비정치적 상황을 통해 표출하는 김예분 씨의 구술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면접자) 경찰 저거, 개놈들 저거, 정치한다 카는 기 우리 정치는 아이고아니고 전부 한전 놓 정치지, 한전 놓 정치 아이가, 우리는 전부 다 불법이고 저거는 찬법[합법]이고, 우리 그 쪼매-이 헐 거는 전부 세금 다 매기고, 벌금 다 매기고 지랄을 하고. (중략, 앞의 내용 반복) 와 느그는 말도 없이 그 산 다 파고, 남의 산을 나무 다 베고 너무[남의] 과일나무, 몇 년을, 몇십 년을 쪼맨치 키아난 거 다 파고, 다 히비고 [후비고] 파고 산에 디비고[뒤집고] 해도 말 한마디 안 해, 그거는 법에 안 걸리고 우리는 쪼매-만 말만 잘해도 법에 걸리고. 야, 이 개씨끼들아 카미[하면서] 마, 욱 마이 퍼부요, 나는 마. (김예분, II, 3/2-20)

(5) 송전탑반대투쟁의 의미 : 잊저녁에 내 호강 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송전탑반대투쟁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참여한 다던 김예분 씨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개별보상금을 받고 투쟁을 포기했는데도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있다. 2013년의 면접에서 강조했던 ‘스물이 가는 길’이라는 말을 2015년 면접에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김예분 씨는 다른 마을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필자에게 강조했다. “죽어도 스물이 가는 길”로 가겠다고 김예분 씨는 왜 “서이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 송전탑반대투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김예분 씨가 했던 어떤 경험이 그녀의 길을 바꾼 것일까?

김예분 씨는 첫 번째 면접에서부터 자신은 보상금에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그리고 이제, 아프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 그림고 부러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그녀를 그렇게 아프게 만든 것은 국가폭력이었다고 말한다. 즉 스물이 가는 길이 그녀에게 갖는 진정한 의미는 다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가해질 배제와 고립에 대한 공포였던 것이다.

부자 그것도 안 부럽고. 인가이[인간이] 제일 기럽고[그럽고], 인가이 제-일 부럽고, 제일, 사람이 부럽지, 그런 것도 안 부러워 예 나는. 포이 저[한이 뻗혀]노이께나, 인간 포이라. (왜 그렇게 인간에 포은이 졌어요, 할매는? 연구자) 그래, 서방이라 카는 기시집오자 마자 그렇게 저렇게 가뻗지요, (중략) 그러이까네 속에 한이 배깃다카이, 인간에 한이. 인간에, 인간에 골병 들었지. 나는 재물 저거 암-만 많다 캐도 하나도, 하이고 그 집에 돈 많아서 좋겠다, 이런 맘이 없고 안 굶어죽고 살마 되지, 자꾸 이맘만 들지, 그게 안 부럽다구요. 그게 안 부럽다, 이때까지 그게 안 부러벼요. 제-일 인가이 골병이라. (김예분, II, 20/4-20)

그런데 송전탑 반대투쟁에 참여하면서 김예분 씨의 삶에 소중한 선물이 왔다. 김예분 씨의 고단한 삶을 알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자신을 환대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²⁹⁾ “편할 날이 없는데 우얍니까. 내 나고는, 내 나고는 하루도, 내 날이지 싶은 날을 몬[못] 보는데”라고 말하던 김예분 씨는 촛불집회에 다녀온 후, “옛저녁에 내 호강받았다”며, “내 사다 때가 이기 내 댐가 싶더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2013년 12월 초 감독이 김예분 씨를 촬영하기 시작한 후 반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29) 포항에 산다는 어떤 사람은 만난 적은 없지만 책에서 김예분 씨 이야기를 읽었다며 종종 전화해 수화기에 대고 김예분 씨와 함께 밀양 아리랑을 부르기도 한다.

(웃으면서 신이 난 태도로 구술) 늙은 할마이를 와 짝- 붙어가지고, 수녀들이 여섯이, 아이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카고. (중략) 아가씨 하나는 내[계속] 붙어가지고 지는 이래 앉아가지고 내-늘- 앉았으며 허리 아프다고 여기 장개[무릎] 있잖아 여기 기대라 칸다. (중략) 짝- 사람 달려드는데 마 아이구 내... 그 대책위의 낫 낱-한 남자, (00사무국장님?-면접자) 몰라. 그것도 아이구 할머니 오셨네 하면서 짝 끌어안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가 내가 엇저녁에 내 호강받았다. (호뭇한 표정으로) 내 사대살다가 때가 이기 때가 이기 때가 이기 내 땀가 시프더더라. 어떠 사람 XX 내 똑 벌, 똑 장수벌맨키로 와 이카노 시프더라 내 속으로, 수녀 아줌마 한 사람은 지 낮을 여기 막- 문때미[문지르며] 아이고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카고. (중략) 할머니 우야든동 나와야 된다, 그래 또 이름 부른다 아이가. 그래가 마이크 들고 한 번 했지. 그래가 박수 다다다다다다다, 박수 세 번, 마-, 열매나 다다다다. (소리내어 웃음) (김예분, 2014. 6. 15.)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김예분 씨에게 밀양투쟁은 국가폭력에 의해 가족을 잃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평생 고통받아온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다. 김예분 씨는 밀양투쟁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때가 이기 내 땀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김예분 씨는 이제 더 이상 스물이 가는 길을 가지 않지만 스물이 가는 길의 안전함보다 더 든든한 ‘연대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물이 가는 길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예분 씨는 합의한 사람들은 “즈그 마음 풀리 했고, 우리는 우리 마음 안 풀리가 안 했”으니 원수지고 등 돌리고 할 것도 없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마” 끝까지 “함 뼈타”볼 생각이다.

2) 이영현 : 765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1) 가족사적 배경

밀양의 대지주 가문 출신인 이영현 씨의 할아버지(1890년생)는 임시 정부의 재무부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독립운동가다. 그러나 1926년 10월에 중국 길림성에서, 김좌진 장군이 창설한 신민부의 조직원에게 살해당했고, 그 후 친일파, 밀양경찰서 폭과 계획의 밀고자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다.³⁰⁾ 분단 후 신민부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점유하게 되면서 이영현 씨의 조부는 지금까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길림성에서 할아버지를 도와 독립운동을 하던 이영현 씨의 아버지(1910년생)는 조선으로 돌아와 배제고보에 입학했으나 광주학생의거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일제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학교도 퇴학당했다.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는 그 후 조선공산당 재건활동 중에 체포되어 다시 고문을 당했다. 부친은 해방 후에도 항만노조 지원활동을 하고 4·3 항쟁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일제 때 고문하던 그 놈들한테” 또 다시 고문을 당했고, 거듭된 고문의 휴유증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³¹⁾ 두 명의 삼촌 중 한 명은 월북했고, 대구고등사범학교를 나온 또 다른 삼촌은 해방

30) 이영현 씨의 조부와 신민부 간에는 군자금 조달방식을 둘러싸고 노선갈등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학술논문이 3편 있다. 이영현 씨의 조부와 함께 활동한 사람이 1980년에 서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영현 씨의 가족들은 조부도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1990년대부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서훈을 받지 못했다.

31) 이영현 씨가 셋째 언니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조선공산당 활동을 함께 했던 김원봉이 “해방된 나라에서도 이렇게 잡혀가서 똑같은 놈이 또 고문하고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며 같이 월북하자고 권했으나 이영현 씨의 아버지는 이미 건강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고문휴유증으로 종종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다고 한다.

후에도 친일파가 득세하는 상황에 격분해 재직하던 학교를 사직하고 막일과 잡화상을 하며 살았다.

이영현 씨의 부모는 아버지가 외가 집 양조장의 집사로 일하는 동안 만나 당시로는 드문 연애결혼을 했다. 이영현 씨 어머니는 명문 여고를 졸업했고 이모와 외삼촌들은 대학을 졸업했다. 한 때 이영현 씨의 아버지와 함께 활동하기도 했던 이모부는 박정희 정권에 참여해 장관과 대학 학장을 지냈다. 이영현 씨가 청소년 때 외가도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었다.

이영현 씨는 1950년 부산에서 9살, 5살, 2살 위의 언니들이 있는 집에 넷째 딸로 태어났다. 이영현 씨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력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고 그녀가 태어난 다음 해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2) 성장기의 빈곤 : 가난이 대-기 끄찍했어

이영현 씨의 구술은, “커-다란 울 안에 집이 여러 채 있었”고, 집 안에 “유치원도 있었던” 외삼촌 집에 대한 이야기와 외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니며 그림을 그렸던 이야기에서 시작해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며 산동네 “하꼬방”에서 살게 된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가난이 대-기 끄찍”했고 “진-짜 가난이 너무 지독했다”는 말을 중심으로 성장기에 대한 구술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끓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벌써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칠판 글씨가 안 보였”지만 안경을 마련할 돈도 없었다. “극빈자”로 살다보니 “굉장히 학창시절 자체를 위축당하면서 살았”다. 학창시절에 관한 구술에서 이영현 씨는 “명-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끝없이 반복³²⁾했는데 그것은 현실을

32) 자주 말한 경우에는 1분 30초 동안 11번이나 말한 적도 있었다. 학창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실제로 그 시절의 심리상태로 돌아가는 듯, 말을 하다말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그런데 뭘 물어보셨어요?” 라고 되묻기도 했다.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당시의 심경을 전달하는 표현이다.

음식솜씨가 좋았던 어머니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아버지가 재직하던 대학 근처에 식당을 열었지만 기대한 만큼 잘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지인들이 아버지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보기 힘들어 하며 오히려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통해 이영현 씨와 가족들은 “친척도 친구도” “극빈에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는 냉정한 현실을 경험했다. 그나마의 식당도 사라호 태풍³³⁾에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어머니는 잘 사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부유하게 자라 “지독한 데가 없는” 어머니가 하는 장사가 잘 될 리 없었다. 삶에 지친 어머니는 자주 딸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청소년기에 자신이 “어둡고”, “무기력하고”, “멍-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느린 어조로 길게 말한 후 이어지는 아래의 구술은, “오십이 넘어서”야 겨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가난에 대한 이영현 씨의 트라우마가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기억이다.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나무담이 열기 설기 붙어있어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집의 마당에서 시력을 잃은 아버지가 운동을 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항상 구경난 듯이” 모여들고 아이들이 “봉사[시각장애인] 나왔다! 봉사 나왔다!”라고 소리치며 구경하는 삶, 민족 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수차례의 고문을 감내하며 싸웠던 아버지가 말년에 감당해야 했던 것은 병마와 치욕이었다. 60대 중반이 된, 밀양투쟁을 통해 그 트라우마를 털어내고 있는 현재에도 그 상처는 너무 아파서 이영현 씨는 아버지가 조롱당하던 이야기를 흐느끼며 빠른 속도로 말할 수밖에 없다.

집이- 난중에는[나중에는] 굉장히 자꾸만 산으로 산으로 올라
갔는데 난중에는 하꼬방 있잖아요, 하꼬방이라고 압니까? 아주

33) 1959년 추석 전날인 9월 17일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사상 최악의 피해를 유발했다.

쓰러져 가는 집 벽돌이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세멘[시멘트], 그렇게 얇게 된 세멘 이런 것. 이제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쪼끄만 마당요. 그 마당에 나무 담인데 그게 열기설기 돼서 안으로 다 들여다보이죠. 다 들여다 보이고 (울먹이며) 아버지가 나가서 운동하면 동네사람들이 항상 구경난 듯이 구경을 하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구술) 아이들은 막 놀러 먹어요. (흐느끼기 시작) 막 디다[들여다] 보고, 그런 게 평생 안 잊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한 오십 넘어선가 겨우... 입도 안 벌렸어요... 입도 벌릴 수가 없었어요. 입 벌리면... 눈물 땀에 할 수가 없었어요. (흐느킴) (이영현, 1, 22/31-37)

어렸을 때는 “내가 막내니까 내랑 있는 시간이 참 많았”고 “동화책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공부도 데끼데리고 막” 시켜주던 아버지와 친했지만, “사춘기를 거치면서 막 그런 환경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었다. “아버지도 보기 싫고, 그 때부터 아버지하고 멀어졌”다. 어린 나이의 이영현 씨로서는 극빈과 조롱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아버지를 원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지-독했던 불행하고 조금... 그래도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이영현 씨가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초등학교 6학년(1961년) 때 이영현 씨의 가족에게 발생했다. 명문여고에 합격하고도 입학금이 없어 1년을 쉰 둘째 언니가 사립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자 신문에 난 것이 시작이었다. 그 직후 한 신문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이렇게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고 이영현 씨의 집에 독지가들이 보낸 후원물품들이 답지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나중에 광복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이영현 씨의 조부를 살해한 조직출신의 거물이, 이영현 씨의 조부가 친일파였

다는 글을 신문에 게재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던 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언니들의 학교에도 소문이 났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 언니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꽤 큰 사건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영현 씨는 후원물품들이 답지했던 것만 기억하고 그 후의 일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최근에 자세히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살 위인 셋째 언니가 당시에 벌어진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 후 이영현 씨의 가족 내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독립운동 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빈곤 뿐 아니라 그런 가족 내 분위기가 이영현 씨가 사춘기에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3) 청년기의 좌절 : 늘- 같등이니까 이 몸이 온전치가 못하쇼

외삼촌을 닮아 이영현 씨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주변 사람들도 재능을 높이 평가해주었다. 하지만 이영현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림은 부잣집 아이들이 하는 것으로 “변질돼 있었”다. 이영현 씨가 다닌 “00여고³⁴⁾에서 교대는 그냥 지원하면 걸”리는 곳이었고 교대를 나와 교사가 되었다면 좀 더 평탄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림에 대한 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에 한번 응시했지만, 그곳은, 차비가 없어 그냥 오기만 하라는 미술학원조차 한번 갈 수 없었던 이영현 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친구들이 집에까지 와서 생활을 보고 갈 정도로 공부를 잘 했지만

34) 이영현 씨의 형제들은 모두 공부를 잘해 중학교부터 입시가 있던 당시에 지역에서 가장 명문이라는 학교를 다녔지만 경제적 이유로 모두 고등학교까지만 마칠 수 있었다.

이영현 씨 자신이 절실히 원했던 길은 화가의 길이었다. 아래에 인용한 구술은 가난 때문에 그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재능이 아니라 부모의 부가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비난, 그리고 자신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안내해주지 않은 주변에 대한 원망으로 고통 받았을 당시의 이영현 씨의 좌절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좌절감이 이후 사회비판의식으로 성장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좌절감이 병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실크 회사의 의장부에 취업한 후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다. 이영현 씨는 이후 40년 가까이 이런 저런 질병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된다. 병 때문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교사였던 큰 언니의 권유로 양장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23세 때) 결혼한 직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26세 때).

그때는 이미 그림이, 그림 잘 그리는 아이의 영역이 아니고 이 변질, 그때부터 벌써 변질돼 있었어예. 그래서 그림을 빨리 그만뒀었어야 됐는데 그걸 계속 끌고나간 게 굉장히, 내한테 더 힘들, 내를 더 힘들게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끝내 이제 그림을 못 놓고 들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계속 뭐 그리라, 대책 없이 그리라 하고 계속 그리고 또 그림은 그리면 또 다들 또 알아주고 인정을 했으니까. 마지막 대학 갈 때 그게 딱 막혀 버린 거죠. 딱 막혀 버리고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게 된 거죠.(중략) 그래 좀 꿈이 있는데 사실 그거 하고 있기가 너무 그, 그거를 못 버리겠더라고예. 참, 그래서 이, 굉장히 늘, 늘 갈등하는 그런, 그런 거, 늘-갈등이니까 이 몸이 온전치가 못하죠. 원래 약한 몸에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병이 나기 시작하더예. (이영현, II, 5/27-6/19)

할아버지가 당한 배신, 그리고 아버지가 당한 국가폭력 때문에 초래된 가난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고통 때문에 병마에 시달리면서 이영현 씨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삶에 대한 기대도 포기했던 것 같다. 그 무기력감은 아래에 인용한 결혼과정에 대한 구술에서도 나타난다. 스물 여섯의 나이에 이미 “내 인생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별로 없었”다고 말하고 결혼도 그런 기분으로 정했다. 큰 언니가 소개해준 남편은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따로 사는 시어머니도 “참 순한” 사람이라 결혼 생활은 편안했지만 이영현 씨는 계속 아팠다. 40대 중반에는 수술 후 진통제 부작용으로 급성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고³⁵⁾

언니가 마, 결혼 하는 게 낫다, 결혼해라, 그러더라고예. 그래 가지고 저 양반 선을 본 거죠. 선을 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좀 내 인생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좋아서 했고 안 좋아서 안 했고 이런 거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뭐 이 쫘, 이리저리 그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맞고 뭐 사람은 또 착해 비고[보이고] 그래 가지고 결혼 했는데, 그래 이제 첫 애기, 큰 딸 놓고 그대로 또 아프기 시작했 거죠. 큰 딸 놓고. 큰 딸 놓고 이게 여기가 흑이 이렇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뭐가 붓더라고. (이영현, II, 7/38-8/3)

(4) 80년의 봄 : 그 뒤부터는 어떻게 봐도 그거를 바로 보진 않았죠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와 멀어졌지만 사회운동가였던 아버지와 밀착해 보낸 아동기의 경험이 이영현 씨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 같다. 이영현 씨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신문을 읽었고, 늘 함께 라디오를 들었다. 함께 공부도 많

35) 그 때는 무덤을 보면, 나 지금 저기 들어가면 얼마나 편할까, 라는 생각에 너무 부러웠다고 했다.

이 했고 “가다 한번 씩 고문 이야기, 일본 놈의 고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영현 씨는 아버지로부터 만주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해방 후의 사회운동 참여경험에 관해서도 아버지 본인이 고문당한 경험에 대해서도 들은 기억이 없다. 반공이 국시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아마도 딸들에게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경력을 숨겼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살 위인 셋째 언니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 일제 시대 때 그놈하고 해방 후에 같은 놈들이 고문 하더라”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기억하는 것을 보면 이영현 씨도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버지의 세계에 속하는 가난을 잊기 위해 함께 잊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 인용한 구술은 이영현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와의 즐거웠던 장면이고 아버지와 멀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 중 가장 길고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이 구술은 이영현 씨의 현재의 실천과 연결되는 대단히 상징적인 이야기다. 아래의 구술에서 등장하는 동화 ‘미녀와 야수’는 막내딸이 아버지를 구하고 사랑으로 왕자의 마법도 풀어 행복해지는 내용의 동화다. 이 구술은 이영현 씨가 막내인 자신이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감당해야했던 치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그것을 통해 자신과 가족 모두도 행복해져야 한다는 당위를 내면화하고 있었으나 아동기부터 경험한 아버지의 세계의 고통 때문에 그것에서 도망가고 싶은 심리가 강해 실천하지 못하는 갈등상태로 살아왔음을 암시하는 기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이영현 씨의 긴 병력은 이 심리적 갈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습득한 거 같애예. 많이 받아 들인 거 같애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막내가 제일 착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웃음) 동화책에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딸이 몇인데 뭐, 와 그거 어디 가서 괴물이 뭐, 너거[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온나 해가지고, 그 동화, 완전 기억은 안 난다. (저도 잘 기억 안 나요-면접자) 막내가 하이틴 그거를 해결합니다. 막내가 해결하고, 여러 가지 막내가 착한 일 하는 그런 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 막내가 제일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이영현, II, 2/25-34)

이영현 씨는 “내[늘] 그 전에도 사실 신문 보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가난 때문에 늘 위축되고 꿈을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위축되었다. 그러던 이영현 씨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민주화의 영향이었고 신문과 사회과학서적 독서를 통해서였다. 박정희의 죽음과 더불어 도래한 80년의 봄, 짧았던 봄이었지만 그 봄에 그녀는 “고만큼만, 고만큼의 신문만 봐도 알겠드라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봐도 그거를 바로 보진 않”는 시각전환의 경험을 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전화해 만난 한 젊은 여성과의 인연을 통해 이영현 씨는 자신의 사회비판의식에 논리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남편은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은, 집까지 와서 사회과학서적을 소개하고 다 읽고 나면 새로운 책을 가져다주었다. 이영현 씨 본인은 몰랐지만 도서관 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만난 것이다.³⁶⁾ 그 사람이 권유해주는 책을 앞 집에 사는 친구와 함께 읽고 토론하고 했는데 “그 때는 정말 내용이 쑥 쑥 들어왔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막연한 문제의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자신감을

36) 이 활동은 1970년대 후반의 양서조합운동에 뿌리를 둔, 부산에서 특히 활발했던 도서관 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은 일반 시민, 노동자, 학생 등 회원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져있기도 했다. 도서관 운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영기, 「1980년대 부산지역 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 『성찰과 전망』 4호, 2009, 171-196쪽, 양서조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차성환,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1」, 『기억과 전망』 8권, 2004, 68-86쪽을 참조하십시오. 이영현 씨는 그 때 읽었던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으로 『전환시대의 인식』(이영희, 1974)을 들었다.

갖게 된 이영현 씨는 87년 민주화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1988년에는 한겨레 신문의 창간주주로도 참여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딸과 사위까지 데리고 매일 시위에 참여하곤 했다. 셋째 언니, 그리고 사회과학 공부를 했던 친구도 같이 나갔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제한적이었고 대화가 통했던 남편도 나이를 먹고 승진을 하면서 이전만큼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 건강은 여전히 나빴고 50대 중반에는 위무력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 불가 선언을 받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요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몸무게는 35 킬로그램까지 떨어졌다.

(5) 송전탑반대투쟁의 의미 : 765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현 씨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 함께 밀양으로 이주하기로 했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남편의 퇴직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지어 이주했다. 생의 마지막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밀양으로 이주한 후 3,4 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³⁷⁾ 그리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목도하면서 “이제 다 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세상일에 대한 관심을 놓았다. 하지만 2011년 말경 집 뒷 산에 765kV의 고압송전탑이 들어선다는 걸 알게 되었다. 2007년에 이주할 때부터 송전탑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을 뒷 산이 아니라 더 먼 곳이라고 주민들로부터 들었다. 한전이 송전탑건설지를 마을에서 먼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이고 합의서를 받은 것이다. 현대의학도 포기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자연환경이 고압송전탑으로 파괴되는 상황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2012년 초에 이치우 씨 분향소를 방문하면서 송전탑반대투쟁을

37) 이영현 씨 외에도 밀양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중에는 밀양에 이주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두 사람 더 있다.

하는 다른 마을의 주민들과 만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송전탑반대투쟁을 하면서 이영현 씨에게 일어난 큰 변화가 건강이 좋아진 것이다. 밀양 이주 후 상당히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만큼 건강하지는 못했던 이영현 씨가 2014년에는 산 위의 텐트(농성장)에서 5개월이나 생활했고, 2013년 가을에는 비닐 한 장만 덮고 산 위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는데도 그걸 다 버티어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밀양 투쟁에 참가했던 주민들과 연대자들에게 떨어진 벌금폭탄을 막기 위해 판매할 물품(바느질과 뜨개질)을 만드느라 밤새워 일을 하기도 한다.³⁸⁾ 심지어 이영현 씨는 산위의 농성장 생활에 관해 구술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보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예.” “하룻밤 딱 자고 나면예, 느낌이, 참- 좋았어예”라며,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영현 씨는 한 겨울의 산 속에서 난방도 없는 텐트에서 자는 것이 왜 편안하고 좋았을까? 이영현 씨의 삶에서 밀양투쟁은 태어나 처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쫓아 하고 싶은 일을 한 경험이고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는 친구도 친척도 다 떠난다는 아동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경험이다. 이영현 씨는 평생 “난 왜 이렇게 못났어? 뭐, 왜 이렇게 몸만 안좋아? 이런 굉장히 열등의식이 심했던”, “하고 싶은 거는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 것도 해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항상 열등감에 시달린달까?”(이영현, I, 15/40-16/10) 그랬다. 그런데 전국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연대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또 수년째 밀양투쟁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것이 변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싶

38) 이영현 씨의 남편은, 한 때는 건강회복을 “본인도 포기를 했고 나도 포기를”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언제나 아내의 건강상태를 걱정한다. 그는 이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식사를 못하고 아프다고 하던 아내가 이렇게 격렬한 투쟁을 하고 과로를 하는데도 괜찮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천하는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이 가혹한 환경에서의 생활조차 편안하고 좋은 일로 체험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건강하게 만들었다.³⁹⁾

‘안 나오면 법적으로 우짜고 연행하고...’ 이런 거짓, 공갈치잖아요. 그러면 막 울산 분들이 막 따져주죠. 막 같이 따지고 같이 소리치고 같이 싸웠어요.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게 첫 싸움... (이영현, 1, 3/27-29)

여기 와서 전부 다 똑같은 사람 만나고 막 이런 생각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고 이런 게 또 굉장히 자신감 붙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속도 시원하고예. (이영현, 1, 18/17-18)

그간 언니들과 사촌들이 할아버지의 오명을 벗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영현 씨는 건강을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송전탑반대투쟁에 참여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도 알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언니가 수집한 자료⁴⁰⁾를 꼼꼼히 읽기도 하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았고,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던 것도 알게 되었다.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경찰의 농성장 철거를 맞서 온 몸에 쇠사슬을 묶고 발버둥 치다 들려나오면서 이영현 씨는 아버지

39) 생애사 면접을 하기 전에 실시한 밀양투쟁참가 경험에 관한 면접에서 이영현 씨는 연대자들과의 경험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영현 씨가 속한 마을은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연대자들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한 마을이다. 그 마을의 연대자들이 “새로운 삶에 도전할 용기를 준 곳”, “우리 집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다른 마을의 연대자들이 “연대자들의 유토피아” “힐링하러 가는 데”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연대자들과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이 뛰어났다. 6.11. 행정대집행 이후 2015년 3월 현재까지도 마을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수예 제품을 만들어 법원이 밀양투쟁에 참여한 연대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영현 씨가 있다.

40) 셋째 언니는 2006년부터 블로그를 열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모아 공개하고 있다.

를 생각한다. 이 싸움을 그만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물리적 폭력에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렇게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걸 버티어냈을까,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고통 때문에 아버지를 외면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너무 철이 없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금할 수 없다.

쫌, 아버지를 보는, 보는 내가 힘들었다 하니까. 아버지 생각을 깊이 안 했던 거 같아요. 내가 더 힘들어했던 거 같아요, 내가. 내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미안해요. 그게 이런 사진⁴¹⁾ 보면서 나는 너무 철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이영현, II, 36/26-28)

이영현 씨에게 송전탑반대투쟁은, 민족해방을 위해 몸 받쳤으나 80년이 넘도록 불명예를 벗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민족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초라한 말년을 보내야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리며 살아했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이영현 씨는 밀양투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가졌던 생각들, 했던 것들”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투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행운”이라고, 열심히 해온 자신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이영현 씨는 밀양투쟁이 단지 밀양에 송전탑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핵발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대체 에너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환경운동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활발히 활동

41) 1933년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당한 후 출소해 찍은 아버지의 사진.

중이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오명을 벗게 하는 활동에 관해서도 “그분들의 명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 사상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헛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눈치 보면서 서훈 받으면 뭐하겠어요?”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와서 765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 했던 것들, 이거 하면서 여기에 쫓 쏟아부었잖아예? 쏟아부리고, 또,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단체명)하고의 만남이 어떤 선물같이 내한테 온 것 같아요. 선물처럼. 진짜 행운이거든요. ** 만난 게. (이영현, II, 41/22-26)

5. 사례의 특징과 비교

국가폭력의 체험을 둘러싸고 두 사례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인다. 두 사례 모두 가족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본인들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는 것이다. 분단과 반공 이데올로기로 표상되는 한국현대사에서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폭력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트라우마 때문에 구술자 본인이 평생 고통 받았다. 즉 김예분 씨와 이영현 씨는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불행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을 얻어 평생 고생했다.

둘째, 국가 폭력은 정신적 상흔을 남길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가난이라는 질곡에 빠뜨린다. 김예분 씨는 국가폭력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동시에 잃었다. 농업경제에서 성인 가족원의 상실은 곧바로 가난으로 이어진다. 김예분 씨는 60세를 넘을 때까지 생계를 걱정하는 극빈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고 자녀들에게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빈곤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영현 씨의 아버지는 국가폭력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족이 빈곤상태에 빠졌다. 빈곤으로 인한 아동기의 열악한 영양상태는 정신적 상흔과 더불어 이영현 씨가 평생 질병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었다. 또 빈곤 때문에 본인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했다.

셋째,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국가 폭력이 구술자들의 삶을 더욱 질곡에 빠뜨린다. 국가폭력의 반복은 국가에 대한 분노를 확대시키며 저항에 한층 정당성을 부여한다. 김예분 씨의 경우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아들을 베트남전으로 가게 만들었다. 아들은 월남에서 부상당해 심각한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즉 남편이 희생되었다라든가 아들이 베트남에 가지 않았거나 베트남에서 심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김예분 씨의 삶은 조금은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영현 씨의 삶에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편향 때문에 조국의 해방과 해방된 조국의 발전을 위해 바친 평생의 삶이 부인되고 있다. 만일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이 부정당했다라든가 아버지가 국가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라든가 아마도 이영현 씨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화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이념적 대립에 의해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가, 비이념적 대립에 의한 국가폭력의 체험을 통해 드러난다. 두 사례는 모두 분단 상황으로 인한 이념적 대립에 의해 발생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오늘날에도 종북 세력이라는 낙인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편향된 이념적 지형 때문에 자신들의 고통을 외부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자연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치유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김예분 씨는 송전탑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지만 불행의 시작이었던 남편 문제에 대하여 분노를 드러내는 데에는 주저한다. 한국 사회가 이

념적 대립에 의해 발생한 트라우마를 자유롭게 드러낼 만큼 사상의 자유가 정착되지는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국가폭력 피해 경험은 두 사례 모두에서 사회운동 참가의 생애사적 맥락을 형성한다. 국가폭력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국가가 핵발전 확대정책에 입각해 피해를 입을 주민들과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압송전선로를 결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 사람은 이 문제의 본질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간파하고 저항운동에 나서게 만든다. 또 세대에 걸쳐 반복된 국가 폭력의 경험은 김예분 씨와 이영현 씨가 자신들의 저항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송전탑반대투쟁에 나서게 했다. 이렇게 두 사례는 모두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압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한국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가족에게 자행된 국가폭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치유함으로써 파괴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두 사례 모두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경험은 사회운동 참여의 맥락을 제공하지만 구술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사회운동 속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예분 씨는 평생 자신과 아들들의 삶을 억압한 빨갱이 가족이라는 딱지로 인한 피해와 소외 때문에 마을 주민 다수와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스물이 가는 길”) 밀양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밀양투쟁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투쟁에 함께 하는 연대자들을 만나면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행위,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김예분 씨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굳히게 된다. 이영현 씨도 밀양투쟁에 참가하면서 만난 주민들 및 연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황이 어려워지면 친구도, 친척도 모두 떠난다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를 극복한다. 또 공유할 사람이 너무 적어 함구하고 살아야 했던 비판적 사회의식을 마음껏 드러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평생 가지고 살았던 열등감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회복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더불어 두 사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비판적 지식과 사회운동의 역할이다. 김예분 씨는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의 선택에 동참한다는 논리적 우회를 통해 밀양투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영현 씨는 곧바로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한다는 판단을 하고 투쟁을 시작한다. 이영현 씨는 초기부터 밀양투쟁에 참가한 주민들 중에서 이 운동이 탈핵운동으로, 대체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문제가 단지 전력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구조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대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영현 씨가 송전탑반대투쟁을 탈핵운동으로 대체에너지문제를 고민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자연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주었다는 믿음과 더불어 80년의 봄 이후 진보적 언론보도를 적극 접하고자 노력한 것, 1980년대 중반 도서관 운동과 결합한 경험이 있다. 사회운동(도서관 운동)과 접촉함으로써 이영현 씨는 자신의 사회비판의식에 확고한 토대를 가질 수 있었다. 즉 이영현 씨의 사례는 하나의 사회운동이 뿌린 씨앗이 또 다른 사회운동으로 피어나는 사례이며, 사회운동 참여에서 비판적 지식과 실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다.

6. 결론

이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의 하나인 밀양송전탑반대투쟁

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해, 분단으로 인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으로 형성된 트라우마가 송전탑반대투쟁이라는 환경운동 참여의 생애사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의 사례들은 사회운동 참여를 통해 가족이 경험한 국가폭력과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냄으로써 가족의 삶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처를 치유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21세기에도 여전히 제한된 사상의 자유 속에서 강요된 침묵을 깨고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힘은 사회운동 속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이다.

이 연구를 통해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 등의 정치적 운동뿐 아니라⁴²⁾ 한국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이념대립에 근거한 국가폭력의 체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체험은 사회의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배제되고 그 기억은 가족과 개인의 삶과 기억 속에 봉인된다.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을수록 봉인의 힘은 강화된다. 때문에 그 트라우마는 이념적 대립의 국면이 아니라 비이념적 대립의 국면을 매개로 비로소 드러날 수 있으며, 은폐되고 삭제된 기억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 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발전과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진진, 그리고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의 발견은 구술생애사 기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구술생애사는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문자문화에 편입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한 사회의 역사와 경험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술생애사 기록은 공식기록을 통해 남겨진 역사와 사회적 행위에 대해

42) 이희영은 1980년대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통해 부모세대가 경험한 국가폭력의 체험이 1980년대의 학생운동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미시적 의미구성의 맥락을 제공함을 발견했다. 이희영, 「체험된 폭력과 세대간의 소통: 1980년대 학생운동 경험에 대한 생애사 재구성 연구」, 『경제와 사회』 겨울호, 2005, 107-132쪽.

풍부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식기록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 이것이 압축적 근대화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다층적 배제의 경험이 축적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구술생애사 기록과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하여 남기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로컬리티는 ‘남겨진 기록’으로 절대로 포획될 수 없으며, 수많은 ‘낮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도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지역의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는 곳인 동시에 주민 공동체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남길 수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삶과 다양한 활동의 기록을 담는 그릇이면서 한편으로 치유의 아카이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을 통해 “한 인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맥락의 치유”⁴³⁾가 이루어지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에 구술생애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3)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호, 2008, 240-244쪽.

ABSTRACT

Biographical Context of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 : A biography-reconstructive analysis on experiences in Miryang struggle against 765kV transmission tower

Kim, Young · Seol, Moonwon

This article analyzes biographies of women participants in Miryang struggle against 765kV transmission tower and finds that the experience of state violence under the ideological conflicts works the biographical context of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movement. The cases analyzed in this article disclose the family member's experience of state violence and their trauma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 And they legitimize their family member's life, heal their trauma, and live a new life by the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But the power of healing trauma comes from solidarity and support in social movement. Findings of this article imply that experiences of state violence have influence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various Korean social movements and we need more solidarity and democracy for healing the trauma occurred by state violence and concealed in individual memory.

Findings of this article also suggest the importance of biography documents. Biography documents can contribute to widen and to deepen understandings on the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history, because they are the document about people's experience who are excluded from the official history and character culture. Moreover biography documents can

compensate the official documents, because they can offer the context to the social actions in the official documents. More accumulations and analyses on biographies can serve to widen and to deepen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Korean society having multilayered exclusion in the process of the compressed modernization and the history of national division.

Key words : Miryang struggle against 765kV transmission tower, state violence, trauma, biography, healing, solidarity